

# 르꼬르뷔지에 유토피아적 자연관의 절대적 이데올로기화 과정 연구 -빌라 사보아와 빌라 마이어 옥상정원을 중심으로-

박진아

(파리 1대학 박사과정)

주제어 : 르꼬르뷔지에의 자연관, 빌라 사보아, 빌라 마이어, 유토피아, 이데올로기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르꼬르뷔지에가 초기에 품고 있었던 유토피아적<sup>1)</sup> 자연관이 그의 건축 작품을 통하여 구체화, 현실화되면서 이데올로기의<sup>2)</sup> 형태를 띠게 되는 과정에 대한 검증이다. 이는 르꼬르뷔지에로 대표되는 아방가르드의 합리주의적 특성이 추구하는 절대적 이데올로기로의 경향에 관한 고찰이기도 하다.

아방가르드가 추구한 절대적 이데올로기란 만프레도 타푸리<sup>3)</sup>에 의하면 특정계급의 가치관에 입각해 있는 허위의식<sup>4)</sup>으로서 20세기 초 과학과

기술 발달에 힘입은 발전의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즉, 기존의 상류계급의 가치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역사적인 유산에 대한 몰 가치화에 바탕을 둔 아방가르드 운동에서는 과거는 부정적이고 파괴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와 미래만이 가치를 가지게 되며 오직 현재의 발전가능성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혼란과 부정, 무질서 속에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현실을 직시하면서 합리주의적 경향을 추구한 아방가르드는 발달된 산업과 기술의 힘을 빌어 그들의 새로운 건축과 도시를 추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이 르꼬르뷔지에라는 한 건축가를 통하여 구체적인 형상을 띠게 되면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되는 과정을 그의 자연관을 통하여 연구 분석하고자 하였다.<sup>5)</sup>

따라서 연구는 르꼬르뷔지에 자연관의 형성 배경과 자연관을 통한 유토피아적 건축이 이후 어떤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그의 절대적 건축이데올로기로 변화되었는가라는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 1-2. 연구의 진행

- 1) 본 연구에서 의도되어지는 유토피아란 용어는 이 단어의 근본개념에 입각해서 사용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말에서 유(ou)는 '없는', 토피아(topos:토포스)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로 즉, '없는 장소'.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가르키고 '소망의 공간'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유토피아를 '소망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체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상체계'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칼 만하임의 해석과는 거리가 있음을 먼저 밝혀 둔다.
- 2) 기존사회의 체계를 붕괴시키기 보다는 이 기존체계에 안주하여 기존의 실체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왜곡된 사상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적 체계를 가르켜 이데올로기로 정의한다.
- 3) TAFURI Manfredo, *Projet et utopie, de l'Avant-garde à la Métropole*, dunod, Paris, 1979, p54
- 4) 정인하, 미셸푸코와 만프레도 타푸리의 역사이론 비교연구, 건축역사연구, 1999년 9월, p96

- 5) 이렇듯 이데올로기를 특정 집단의 발전이념으로 절대화 한 해석에 반하여 보편적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념체계로 이데올로기를 해석하여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상대화한 접근방식 또한 존재한다. 이는 만하임에 의한 개념설정으로 본 연구와의 방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연구의 전반부는 "자연"이 그의 건축언어로서 정립되어 특별한 의미부여가 되기까지 르 꼬르뷔지에의 자연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에 의한 고찰로서 그의 성장기 교육과정에서의 영향과 동방 여행 중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에서의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성 정립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자연관이 건축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의 건축언어로서 구현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즉, 자연관이 가장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옥상정원에 관한 분석을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빌라 사보아와 빌라 마이어의 예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끝으로 위의 두 과정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르 꼬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자연관이 그의 절대적인 도시건축 이데올로기로 변화되는 과정과 인간의 삶이 주체로서가 아닌 객체로서 인식되게 되는 근대이후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고찰하였다.

## 2. 르 꼬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자연관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도시 이론에서 자연은 항상 그가 펼치는 논제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의 건축에서, 그의 도시에서, 자연은 건축과 도시가 성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그 자체만의 존재 "이유"로서 그의 언어가 되고 결국은 건축의 일부분으로서 흡수된 듯이 보인다.

그의 도시건축에서 적용되고 추구되는 자연은 과연 르 꼬르뷔지에의 어떠한 유토피아적 이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가 이 장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계획된 동일한 모델의 주거형태를 보급시킴으로써 지역적 기후적인 특성의 차이나 도시와 농촌이라는 경계의 의미자체를 무의미하게 해석하고자 한<sup>6)</sup> 르 꼬르

6) 농촌과 도시의 경계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지역적인 차이를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은 이미 르 꼬르뷔지에 도시계획사상의 원류가 되는 로지에를 위시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주의 학파와 푸리에와 프루동, 콩시데랑 등 19세기 진보된 산업과 기술의 힘을 빌어 유토피아적 도시 안을 제시하였던 부류에서 이미 나타난다. 막스와 앤젤 또한 이 차이를 없애려고 주력한 부류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 문화적 차이를 없애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버지에의 유토피아적 이상안에서는 자연을 절대적인 쏘바쥐(sauvage)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쏘바쥐란 야생의, 원시그대로를 뜻하는 프랑스 어로 르 꼬르뷔지에가 자연을 언급할 때 가장 즐겨 쓰던 표현이었던 동시에 실제 그의 작품에서도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정원"에서 조차 야생정원(jardin sauvage)개념이 그의 작품 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식 전통 정원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르 꼬르뷔지에의 초기 작품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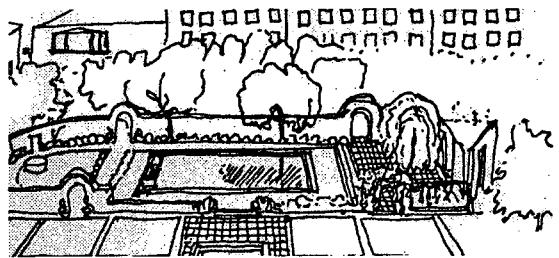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 전통정원디자인을 참조로 한 르 꼬르뷔지에의 초기 정원크로키 습작, 1912

이는 과거의 유기적 도시 형태나 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직 기술적 진보와 기술에 의해 미래를 추구한 급진파 도시계획안의 하나로서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형태의 미학으로부터 근본을 찾은 까밀로 지테의 문화과 도시계획에서의 자연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sup>7)</sup> 즉 거리와 광장의 구성에 우선적인 초점이 맞추어

앞의 사상가들과 같은 구체적인 이론적 혹은 실질적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최초의 유토피아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토마스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있기는 하지만, 형태적인 차이와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뚜렷한 경계는 많이 둔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 급진파, 문화파라는 것은 프랑스의 도시건축역사비평가인 프랑스와즈 쇼에 의해 분류된 기준으로, 진보적 기술을 수단으로 해서 이를 신격화까지 시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만을 추구하는 사상가들과, 진정한 유토피아를 과거 전통도시에 대한 질서와 문화적 향수 속에서 찾는 사상가들을 각각 급진파와 문화파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유토피아적 사상에 바탕을 둔 계획가들에 대한 분류는 이에 만하임에 의해서도 시도되었지만 유토피아에 대한 개념 설정에서부터 쇼에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만하임이 정의한 유토피아는 과거가 아닌 미래만을 향한 긍정적인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미래를 바탕으로 한 급진주의자들의 사상만을 가르키게 된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되는 과거의 질서에 뿌리를 둔 사상을 만하임은 보수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진 도심중심지에서는 자연의 흔적이라고는 주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주거 지역에서의 자연 조차도 원시적인 자연이 아닌 인간에 의해 계획된 자연을 그리고 있는 까밀로 지테에 비해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안에서는 인간에 의해 세워진 건축물 이외의 나머지 장소에서는 태초의 자연모습을 재현하는 듯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서는, 그의 건축언어 생성 과정에서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건물과 대지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 내에서 그의 자연관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논의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주제와 연관되어 수행되었던 연구와 르 코르뷔지에 자신의 글 혹은 편지 등을 참조하여 그의 자연관 형성의 배경에 우선 초점을 맞추었다.

### 2-1. 르 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자연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들에 관한 선형적 고찰 - 성장기 스위스에서의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자연관

르 코르뷔지에의 자연관 형성의 배경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쇼-드-퐁(Chaux-de-Fonds)에서의 교육과정 몇 년 동안을 살펴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을 예술과의 관계성에서 가지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당시 르 코르뷔지에의 은사였던 샤를르 에플라테니에(Charles l'Eplattenier)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1925년의 글에서 르 코르뷔지에는 그의 은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 예술에 관한 독특한 시각을 말해준다. "나의 선생님이 말하길 : 오직 자연만이 인간의 창조물인 예술 활동에 유일하게 영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경가들이 보여주는 자연의 형상적인 면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생성과정을 보면서 형태와 원인을 탐구하고 종합하는 사고가 필요하다."<sup>8)</sup> 이 글은 예술가의 중요성과 자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즉 혼란과 무질서 상태의 자연 속에서 질서와 조화, 통일성을 깨달아서 이를 표

현하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라는 것이다. 여기서 르 코르뷔지에가 샤를르 에플라테니에로부터 받은 영향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자연의 근본적인 생성과정에 관한 관찰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본연의 상징적인 관계에 관한 숙고를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받아들인 자연은 바로 조화와 질서가 내재되어 있지만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연이었다. 이후 르 코르뷔지에가 자연을 언급할 때, 그의 활동 초기에서부터 일관되게 원시적인 쏘바쥐(sauvage)를 추구한 것은 이러한 혼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조화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르 코르뷔지에를 자연 숭배적 예술가로서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초월적 사색가로서의 해석 또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9)</sup>

두 번째는, 샤를르 에플라테니에가 시사해 준 자연의 형태 그대로를 예술의 영감으로 취하는 형태에 관한 비판적 태도는 역시 르 코르뷔지에에게도 연결된다. 땅에서 솟아오르려고 하는 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도리아식 기둥이며 모든 아름다운 예술의 기원은 바로 자연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sup>10)</sup> 이처럼 건축의 형태와 자연의 형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합리화에 의해 주장을 펼치는 부류에 대한 심한 부정과 함께 자신은 합리적인 기하학을 그의 건축언어로 선택을 한다.

### 2-2. 르 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자연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들에 관한 선형적 고찰 - 아크로폴리스에서의 영감

1911년 1월 16일 샤를르 에플라테니에에게 보낸 편지에서 르 코르뷔지에는 그리스와 터키를 거쳐 이탈리아의 여행 중에 발견한 고전주의에 대한 경외와 이를 통해 그의 건축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그가 추구할 유토피아에서의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sup>11)</sup> 르 코르

9) *Le Corbusier et la nature, ouvrage collectif,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1991, p185*

10)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Arthaud, Paris, 1923, p170*

11) *Lettre à Charles l'Eplattenier, Monaco, 16 janvier 1911,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경향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빛 아래에서 기하학

8) Le Corbusier, *L'art décoratif d'aujourd'hui*, Paris, 1925, p198

뷔지에가 발견한 고전주의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건축 자체가 바로 자연 경관의 존재 이유가 되고 동시에 자연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자연경관에서 두드러지며 자연을 압도하고 있는 듯 보이면서도 하늘과 땅과 자연과 너무나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자연의 일부인 듯한 느낌을 주는<sup>12)</sup>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르 코르뷔지에의 이미지는 이후 그의 소망공간인 유토피아로 작용해 그의 작품에서 꾸준히 추구된다.



그림 2. 르 코르뷔지에의 아크로폴리스 크로키

초기 샤를르 에플라테니에(Charles l'Eplattenier)로부터 영향 받았던 인간과 자연의 본연의 상정적인 관계에 관한 숙고와, 자연과 건축의 대조적 이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던 아크로폴리스에서의 유토피아적 감흥에서, 건축과 자연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면을 우위로 한 또 다른 면모의 유토피아가 추구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한 적절한 예시 하나를 살펴보면, 카잘리 발레리오는 "경관으로서의 자연"이란 글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과 자연을 프리즘과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sup>13)</sup> 즉, 각기둥의 모양을 한 프리즘이 햇빛을 받을 때 주위에 산발적으로 춤을 추듯 확산되는 형태를 자연에 빗대어서 나타낸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언제

---

의 바탕으로 변화무쌍한 공간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를 찾은 기쁨이란... 그동안 북쪽의 고딕문화와 러시아의 야만문화, 독일의 고뇌에서 제가 받았던 거북스러운 감정에 비해 이제는 드디어 제가 쏟아 부을 정열을 찾았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이것이 바로 저의 발전된 변화입니다."

12)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Arthaud, Paris, 1923, p171

13) 프리즘이란 단어는 이미 르 코르뷔지에에 의해 주택을 비유하면서 사용된 바 있다 : Le Corbusier, *Architecture Vivante*, Morance, Automne, 1932, p17

나 주가 되는 것은 프리즘이며 프리즘이 주위를 항상 압도한다. 이 광경에서 멀어지다 보면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은 프리즘과 같은 형태를 띠게되고 바로 그 순간, 주위의 자연이 자유로운 형태로 굽이치면서 르 코르뷔지에 도시의 경관이 되고 새로운 건축 무대가 연출된다."<sup>14)</sup>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이 이처럼 자연에 대하여 대조적인 입장만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알제리 도시계획과 리오 드 자네이로, 부에노스 아리에스, 마르세이유 계획 등에서는 자연과 건축의 유기적인 형태의 결합을 추구한 혼적을 볼 수 있다.



그림 3. 알제리 프로젝트, 1930



그림 4. 리오 드 자네이로 크로키, 1929

이는 라틴아메리카 여행 도중의 자연과 건축에 관한 또 다른 발견으로서 자연과 건축의 대조적이고 상대적인 입장 대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마치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의 깨달음이었다.<sup>15)</sup> 따라서 르 코르뷔지에가 발견하고 중요시하게 된 것은 건축이나 자연 그 자체가 아닌 도시와 자연, 그리고 건축과 경관간의 관계성과 유기성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

14) CASALI Valerio, "La nature comme paysage", *Le Corbusier et la nature*,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p135

15) 이에 관한 1929년 남미에서의 강연 내용은 : Le Corbusier, *Précisions sur un état prés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 Vincent Fréal, Paris, 1930

서 말하는 관계성이란 언제나 자연과 건축의 등등한 평등적인 관계가 아닌 주로서의 건축이 자연을 압도하면서 생기게 되는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받았던 영감으로서 하나 더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높은 장소와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시선에 대한 르 코르뷔지에의 집착이다. 이러한 원근법적 시선은 건축가로서보다는 화가의 눈을 빌린 것으로서 회화적 미학의 영역에서의 영향은 아크로폴리스 뿐 아니라 다른 몇 가지 맥락에서의 유추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쥐라산맥지역 출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년기적 환경적 영향으로, 높은 산 위에서 자신의 시선 밑으로 제한 없이 펼쳐지는 경관에 대한 동경이 그의 작품 활동 동안 끊임없이 내재되어 표출되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것으로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사상이 근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는 학술적인 영향이다. 그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주의 학파였던 로지에에 의한 영향으로<sup>16)</sup>, 바로크적 도시의 유기적 구성을 부정하고 이를 초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화 미학의 형태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도시 자체를 자연의 한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르 코르뷔지에는 "빛나는 도시"에서 이러한 넓고 멀리 펼쳐진 회화적 관망에 대한 찬미와 집착을 보여주었는데, 스타니스로스 본 무스는 이러한 회화적 관망을 향한 르 코르뷔지에의 집착으로 인하여 초기 자연관이 작품에서는 왜곡되어 표현된다고 주장한다.<sup>17)</sup>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언어에서 표현되는 자연은 그의 원근적 관망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재설정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르 코르뷔지에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관이 건축언어로 표출되면서 하나의 목표로의 추구로 인하여

자기 절제(self-control)를 잊고 자신의 궤도에만 집착하게 되어 결국은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본 연구의 논제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이론 전개상 건물의 높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부와장 계획(Plan Voisin)에서 에펠탑은 르 코르뷔지의 자연적 관망을 만족시켜주는 파리의 몇 되지 않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주거건물 계획에서 조차도 이러한 측면이 중요시되었음을 분석해 보는 것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이데올로기를 명확하게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3. 르 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자연관 종합

앞서 살펴본 르 코르뷔지에의 자연관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통하여 그가 추구했던 유토피아적 자연관과 건축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조화에 대한 믿음으로 원시적인 쏘바쥐로서의 자연을 추구하였다.

둘째, 자연의 형태 그대로를 예술의 영감으로 취하는 형태에 관한 비판적 태도로 인하여 건축의 형태와 자연의 형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합리화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하며 자신은 합리적인 기하학을 그의 건축언어로 선택하였다.

셋째, 인간에 의해 창조된 건축 자체가 바로 자연 경관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언제나 자연을 압도하고 있는 건축과 이 관계에서 비롯되는 건축과 경관, 도시와 자연을 추구하게 되었다.

넷째, 회화적 미학의 영향을 받아 높은 장소에서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시선에 대한 추구, 즉 원근적 관망에 대한 욕구는 그의 건축대지와 건물 높이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게 된다.

### 3. 르 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자연관이 건축 이데올로기화되는 과정에 관한 고찰

16) 르 코르뷔지에는 그의 책, *도시계획(Urbanisme, Vincent et Freal, Paris, 1966)*에서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의 이론적 배경이 로지에의 이론에 의한 영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로지에와 그 이외의 자연주의 학파의 이론은 20세기 근대건축운동의 도시관 형성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 주제만으로도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가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에 관해서는 만프레도 타푸리의 건축과 유토피아에서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주의와 도시'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 TAFURI Manfredo, *Projet et utopie, de l'Avant-garde à la Métropole*, dunod, Paris, 1979

17) Stanislaus Von Moos, *Le Corbusier : l'architecte et son mythe*, Horizons de France, 1971, p142

본 장에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자연관이 그의 건축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면서 초기의 유토피아적 사상이 건축가의 이데올로기로 굳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르 꼬르뷔지에가 가진 자연관을 가장 뚜렷이 관찰할 수 있는 건축 요소로서 그의 많은 주거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옥상정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르 꼬르뷔지에가 즐겨 사용했던 옥상정원 개념은 1920년의 시트로엥 주택, 1922년의 파비옹 에스프리 누보, 1923년의 로쉬주택, 1925년 레망 호숫가의 작은 집, 1925년의 폐삭, 1926년의 마이어 주택, 1931년의 사보아 주택 등에서 꾸준히 관찰할 수 있다. 이들 작품 중에서 르 꼬르뷔지에의 옥상정원의 개념이 가장 명시화되고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빌라 사보아와 빌라 마이어를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sup>18)</sup> 옥상정원, 혹은 옥상 테라스라는 건축적 요소는 르 꼬르뷔지에가 자신의 건축언어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이전에 이미 토니 가르니에의 산업도시<sup>19)</sup>에서나 그 보다도 더 이전인 19세기 영국의 의사이자 도시민의 공중위생에 초점을 두고 제안한 벤자민 워드 리차드슨의 유토피아적 이상 도시 안에서도<sup>20)</sup> 발견할 수 있다. 르 꼬르뷔지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된 건축적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가 추구하는 자연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매개체일 뿐 아니라 그의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건축요소로서의 기능 이상으로 그의 건축관, 세계관, 사회관 등 그의 전반적인 건축사상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르 꼬르뷔지에가 주거작품에서 옥상정원을 계획한 의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관찰을 요한다. 즉, 앞서 살펴본 높은 곳에서의 자연 관망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이후 옥상정원이 이데올로

18) 르 꼬르뷔지에의 대표적인 주거건축인 빌라 사보아에 반해 빌라 마이어는 계획안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은 없지만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 작업에서는 꼭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작품으로 르 꼬르뷔지에의 자연관이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19) GARNIER Tony, *Une cite industrielle*, Vincent, Paris, 1917

20) RICHARDSON Benjamin Ward, *Hygeia, a City of Health*, Macmillan, London, 1876

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간의 연속적인 개념에서의 "out-door room"으로서의 기능 또한 다루어져야 한다.<sup>21)</sup>

### 3-1. 빌라 마이어와 빌라 사보아의 옥상정원의 "옥외거실"(out-door room)로서의 기능

실외의 정원을 실내 공간의 연속된 주거공간으로 보는 개념은 20세기 초 모던운동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 "다가올 정원"(the coming garden)이라는 미래의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응한 문구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는 그 이전까지의 정원계획 개념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대응해서 시작된 것으로 모든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원디자인 분야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개념이 혼들리게 되었다. 즉, 대지의 특수성과 지역성, 그리고 시대성 등에 기초하고 있던 정원디자인분야는 근대 산업화시대의 특성인 평준화, 표준화, 국제화와 가속화되고 변화된 삶의 주거방식과는 공존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정원디자인에서도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근대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는데, 인상주의, 아르누보, 미술수공예운동, 신고전주의, 일본주의 등의 영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영국에서 구스타브 알링거(Gustav Allinger)가 미래의 정원개념으로서 "다가올 정원"(the coming garden)을 1926년에 발표하였고 "옥외거실"(out-door living)으로서의 정원개념은 이 중에 포함된다. 문밖의 거실이라는 뜻의 이 새로운 정원의 개념은 사 주거 방식에서의 실내와 실외 공간의 구별을 없애고 정원을 거실과 같은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한 새로운 주거공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인 건축가이자 정원디자이너였던 헤르만 마터ن(Hermann Mattern)은 정원을 당시 독일의 정치적인 현실에서부터의 탈출구로서 "자신의 사공간인 정원으로의 도피"라는 개념을 사용했다<sup>22)</sup>. 이

21) 물론 이 외에도 르 꼬르뷔지에 스스로가 밝힌 기술적인 측면, 위생상의 측면도 옥상정원을 계획한 중요한 의도이지만, 이는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공간 분석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여겨지고 본 연구의 진행방향과는 차이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GROENING Gert and MOLSCHKE-BULMAHN Joachim, "changes in the philosophy of garden

처럼 “옥외거실”(out-door room)으로서의 정원은 실내주거공간과 같은 극히 사적인 공간을 뜻하는 개념으로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마이어와 빌라 사보아에 사용된 옥상정원 역시 20세기 초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의 근대정원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1925년 르 코르뷔지에가 마이어부인에게 자신이 계획한 옥상정원에 관하여 쓴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거기엔 기와지붕도 슬레이트 지붕도 아닌 옥외수영장과 함께 풀이 우거진 옥상정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당신을 감싸고 있는 것은 오직 지붕 대신의 하늘과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벽뿐입니다. 주위의 아무도 당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이면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저 멀리의 폴리-생-제임스의 우거진 숲을 보며 당신은 완전히 혼자가 되게 됩니다.”<sup>23)</sup> 하늘아래에서 벽에 둘러싸여 주위의 아무에게서도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은 주위 이웃과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실내에서의 공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서 정원 밖으로 펼쳐지는 우거진 숲과 하늘과 자연은 내 맘껏 감상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옥상정원이라는 공간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사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의 내부공간이 됨과 동시에 지붕이 없는 하늘 아래의 외부공간으로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뜻한다. 이는 당시의 급변하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차단이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의 정원의 특징이 1920년대 주위 이웃의 시선으로부터의 격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코르뷔지에의 마이어 주택의 옥상정원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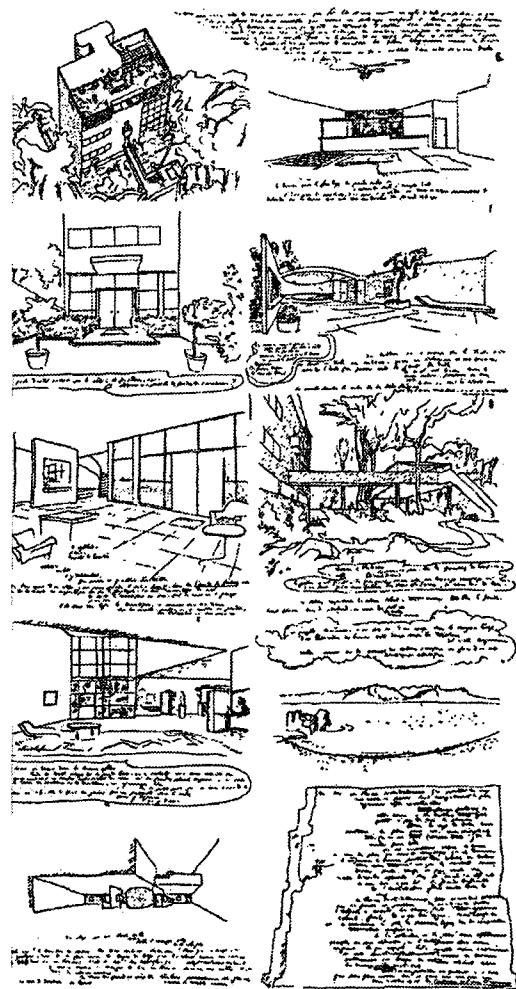


그림 5. 1925년 10월 마담마이어에게 르 코르뷔지에가 보내는 편지와 함께 빌라 마이어 스케치

### 3-2. 원시적 형태로서의 정원

그렇다면 두 빌라의 정원에 표현되는 자연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까? 르 코르뷔지에는 초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시적 자연모습 그대로를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자연관을 두 빌라에서도 적용시키고 있다. 빌라 마이어에서의 옥상정원에서 표현되고 있는 “우거진 풀”은 다음의 문장에서 정확히 쏘바쥐의 개념이 의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로빈슨에서처럼, 혹은 약간은 카파치오의 그림에서처럼... 이 옥상정원은 프랑스의 전통정원과는 거리가 먼 작은 원시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생-제임스 공원 덕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마치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sup>25)</sup> 이는 마담 마이어에게

architec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ir impact upon the social and spatial environment”, *Journal of garden history* 9, April-June 1989, p6

23) *Lettre de Le Corbusier à Mme Meyer*, octobre 1925, Fondation de Le Corbusier 31525 : 르 코르뷔지에의 *Oeuvre Complète*에 빌라마이어의 이미지스캐치와 함께 편지도 같이 소개되어 있다.

24) 빌라 마이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만을 종합 연구한 팀 벤튼의 책을 참조하길 바란다 : BENTON Tim, *Les villas de Le Corbusier 1920-1930*, Paris, 1984

보낸 또 다른 편지를 통하여 옥상정원에서 관망 할 수 있는 생-제임스 공원의 푸르른 자연과 새 소리까지 르꼬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자연관을 더 구체화시킨다.<sup>26)</sup> 빌라 마이어에서는 이처럼 옥상정원 뿐 아니라 주택 마당의 정원에서도 인공적이지 않은 원시적 자연을 추구하는 같은 의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사보아 주택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르꼬르뷔지에는 빌라 사보아 마당에 펼쳐진 정원을 가르켜 "정원"이라는 단어대신 항상 "충만한 자연"(pleine natu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정원가나 건축가에 의해 재구성되는 정원일지라도 최대한 원시적인 자연에 가깝도록 추구하려는 르꼬르뷔지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또한 정원에 심겨질 나무의 종류까지도 정원가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르꼬르뷔지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정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하게 될 자연관이 그의 건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크 스브리글리오는 빌라 사보아의 "충만한 자연"의 형태를 통해 르꼬르뷔지에가 추구하려고 했던 자연은 바로 "에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sup>27)</sup> 또한 자연과 인간을 절대적인 플라톤적 이상 속에서 화해시키려 했던 마지막 시도였다는 의견 또한 흥미롭다.<sup>28)</sup>

### 3-3. 옥상정원의 자연조망 기능

건축과 대지는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자연을 조망이라고 보는 관점에 관한 집착이 어떠한 형태로서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겠다. 르꼬르뷔지에의 건축에서 대지는 앞서 관찰한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에서의 상징성의 맥

25) *Lettre de Le Corbusier à Mme Meyer*, octobre 1925

26) *Lettre de Le Corbusier à Mme Meyer*, 24 fevrier 1926, Dossier Meyer, doc.5 : "지금 2월의 생-제임스공원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들도 푸르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장하건데, 이 건물이 공사만 시작된다면 당신은 내년에 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정말로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옥상정원은 "아직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몽테 카를로스의 노란 아카시아 숲 한가운데에 있는 듯 바로 당신은 파리의 옥상에서 당신의 정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7) SBRIGLIO Jacques, *Le Corbusier : La villa Savoye*,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1999

28) BENTON Tim, *Les villas de Le Corbusier 1920-1930*, Paris, 1984, p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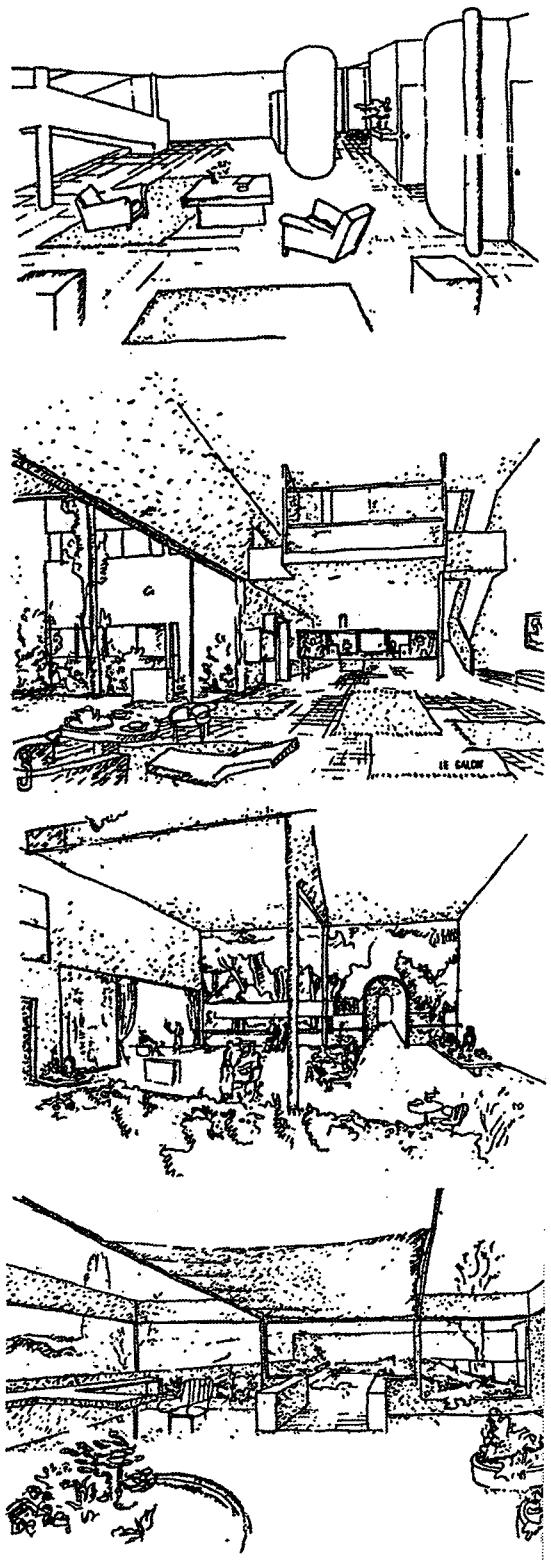


그림 6. 1926년 4월 빌라 마이어 옥상정원 크로키

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빌라 사보아와 라투레트 사원, 그리고 롱샹교회를 살펴보면 모두 다 언덕 위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적인 명상과 사색을 위한 아크로폴리스에서 자연의 대지는 영원해지고 시적 감흥이 솟구친다"는 르 코르뷔지에의 표현에서<sup>29)</sup> 지형적으로 높은 곳을 추구함으로써 경관의 주가 되고 자연을 지배하려던 그의 의도는 충분히 관찰 된다.



그림 7. 대지와 건축과의 관계 예1

- 빌라 사보아 크로키



그림 8. 대지와 건축과의 관계 예2

- 롱샹교회 전경

건축학교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보여주는 르 코르뷔지에의 이러한 자연관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성을 제시하여준다.<sup>30)</sup> 즉, 건축과 자연의 지배적인 관계성은 건축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연과 자아의 관계성에 의해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건물 내에서 건축가의 의도된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자연을 통합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시작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가의 의도된 계획이란 곧 옥상정원의 관망대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빌라 사보아와 빌라 마이어의 옥상정원의 벽에 의도된 창 너머로 펼쳐지는 자연경관이라든지, 그의 부모님을 위한 작은집 정원의 벽에 있는 창문도 같은 의도에서

계획된 것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에서 주위 대지와 건축은 옥상정원의 벽 너머로 혹은 창문을 통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빌라 마이어와 생-제임스 공원, 빌라 사보아와 푸아시 공원, 부모님을 위한 작은 집과 레망 호수, 유니테 다비타시옹과 마르세이유 바다와 산 등은 그의 건축 언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연관의 위치를 가능하게 해 준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베스테귀 아파트(*l'appartement de Mr. Beistegui*)에서는 도시경관이 자연경관을 대신함으로써 르 코르뷔지에의 유토피아적 이상과 파리라는 현재의 도시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을 발견할 수 있으나 높은 곳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자 했던 의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 4. 결론 : 유토피아적 자연관의 이데올로기화

앞서 두 빌라의 예로서 살펴본 르 코르뷔지에의 옥상정원 개념이 그의 건축에서 실현되면서 이데올로기로 되는 과정은 두 경로로서 관찰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프롤레타리아화이다. 즉, 두 빌라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르 코르뷔지에가 계획하였던 옥상정원은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참으로 부르주아적인 생활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내 이외에도 아침식사를 위해 마련된 실외 공간과 나무와 풀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옥외 풀장, 햇빛을 맘껏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끽은 날씨에 대비해 준비된 테라스 그리고 운동공간과 샤워시설 등은 호화로운 근대 생활방식을 이만큼 명쾌하게 드러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르주아 생활방식을 담고 있는 옥상정원의 개념을 르 코르뷔지에는 그의 폐삭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유니테 다비타시옹과 같은 공동주거단지에서 이번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는 장소가 아닌 주거민 공동의 휴식 공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하나의 건축언어를 정 반대의 생활방식에 각각 적용시킴으로써 본래의 옥상정원이 가지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의미를 잃게 되었음은 물론이거나 이것이 공동주택의 공동공간으로서 전이된 또 하나의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발전된 것이나

29) Le Corbusier, *Précisions sur un état prés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 Vincent Fréal, Paris, 1930, p50

30) Le Corbusier, *Entretien avec les étudiants des écoles d'architecture*, Minuit, 1957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방문객들과 건축가나 예술가들이 주로 거주자로 되어 있는 마르세이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폐쇄 단지와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초기 거주자들이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는 옥상정원이 개인 주거 공간의 연장선 상에 놓일 수도 없었고 공동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 또한 이해되지 못하였다. 필립 부동에 의해 연구되어진 폐쇄 단지에 관한 글을 보면 거주민들의 건물이용 실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옥상정원은 단지 빨래를 널 때에만 올라가거나 창고로 이용될 뿐 휴식이나 이웃과의 단합을 위한 목적 등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다.<sup>31)</sup> 더욱이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 자연을 감상하거나 그곳이 옥상 정원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으며 거주자에 따라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라갈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건축가의 이상과 실 거주자의 생활방식과의 사이에 심한 괴리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건축가가 실 거주자를 고려치 않은 채 품고 있던 유토피아적 이상만을 현실화 시켰을 때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적 장소적 특성을 무시한 유토피아인의 이데올로기화이다. 르꼬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는 유일하게 푸아시에만 위치하도록 계획되어진 주택이 아닌, 아르헨티나의 전원에 여러 채가 들어서게 될 프로토 타입으로 계획되었다. 장소와 날씨, 지역성, 도시적 맥락, 문화, 정치, 경제적 특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아니고 다만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주거 모델을 보급시키겠다는 사상<sup>32)</sup>은 앞서 살펴본 르꼬르뷔지에의 건물과 주변대지가 가지게 되는 관계성이 직접적인 상대성이 아닌 간접적인 절대성이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드러낸다. 즉, 르꼬르뷔지에의 건물은 직접적인 주변 환경과 자연에 의해 상대적으로 조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르꼬르뷔지에가 추구하는 아크로폴리스 이미지의 절대적 자연관을 형상화시키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구성된 자연이라는 것이다.

31) BOUDON Philippe, *Pessac de Le Corbusier*, Dunod, Paris, 1969, p72-76

32) Le Corbusier, *Précisions sur un état prés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 Vincent Fréal, Paris, 1930, p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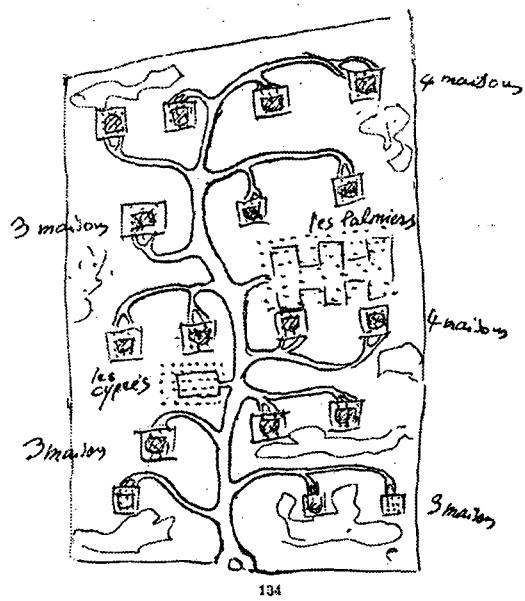


그림 9. 프로토 타입으로서 아르헨티나에 계획된  
빌라 사보아

따라서 빌라 사보아는 푸아시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라투레트 사원의 대지위에 서게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절대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라도 가능한 것이다. 그의 부모를 위하여 설계된 레망 호수변의 작은집은 먼저 고안한 계획안을 가지고 그에 맞는 대지를 찾았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르꼬르뷔지에가 추구하였던 유토피아는 건축이 대지와 자연을 암도하고 경관에서 주가 되기 위하여 재구성됨으로써, 인간의 주관적인 삶의 형태를 프로토 타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객체화시킴으로써 이데올로기화 되었다.

따라서 르꼬르뷔지에가 품고 있었던 유토피아적 자연관은 옥상정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의 건축에서 현실화되었으나 주체로서 인식되어져야 할 인간의 삶이 객체로 해석되면서, 동일하게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할 자연이 객체로서 수단화되면서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이는 곧 유토피아적 이상이 구체화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아방가르드의 공통적인 특성으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 &lt;참고문헌&gt;

1. BENTON Tim, *Les villas de Le Corbusier 1920-1930*, Paris, 1984
2. BONAITI Maria, "jeune Le Corbusier : du naturalisme régionaliste à la poétique de l'artifice", *Le Corbusier et la nature*,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p69
3. BOUDON Philippe, *Pessac de Le Corbusier*, Dunod, Paris, 1969,
4. CASALI Valerio, "La nature comme paysage", *Le Corbusier et la nature*,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5. CHOAY Françoise, *L'urbanisme, utopies et réalités*, Seuil, 1965
6. CONSTANT Caroline, "From the Virgilian Dream to Chandigarh : Le Corbusier and the Modern Landscape", *Denatured Visions : Landscape and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museum of modern art of New York, 1988, p79-93
7. ECKBO Garrette, "Outdoor and In : Garden as living space", *magazine of art 34*, Octobre 1941, p422-427
8. FRAMPTON Kenneth, "In search of the Modeern landscape", *Denatured Visions : Landscape and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museum of modern art of New York, 1988, p42-61
9. KASSLER Elizabeth B, "outdoor room", *Modern garden and the landscap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64
10. LAUGIER Marc Antoine, *Essais + observation sur l'architecture*, Pierre Mardaga (1er edition : Hague, 1953, 1965), Paris, 1979
11. Le Corbusier, *Architecture Vivante*, Morance, Automne, 1932,
12. Le Corbusier, *Entretien avec les étudiants des écoles d'architecture*, Minuit, 1957
13. Le Corbusier, *Précisions sur un état prés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 Vincent Fréal, Paris, 1930
14. Le Corbusier, *L'art décoratif d'aujourd'hui*, Paris, 1925
15. LE CORBUSIER et PIERRE JEANNERET, *Oeuvre Complète 1910-29, 1929-34*, Zurich, 1964
16. LE CORBUSIER, *Une petite maison , D'architecture* Zurich, suisse, 1954, 2e édition
17. Le Corbusier, *Urbanisme*, Vincent et Freal, Paris, 1966
18.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Arthaud, Paris, 1923,
19. LE DANTEC Jean Pierre, *Jardins et Paysages : textes critiques de l'antiquité à nos jours*, Larousse, 1996
20. MANNHEIM Karl,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 임석진 옮김*, 청아출판사
21. ROBERT Florence, "jardin et le paysage dans l'oeuvre de Le Corbusier" *Paysage actualité*, Novembre 1990, p104-108
22. SBRIGLIO Jacques, *Le Corbusier : La villa Savoie*,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1999
23. SBRIGLIO Jacques, "Sauver cette vue admirable des montagnes", *Le Corbusier et la nature*,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p80
24. TAFURI Manfredo, *Projet et utopie, de l'Avant-garde à la Métropole*, dunod, Paris, 1979
25. TUNNARD Christopher, "gardens for modern houses : reflections on current trends in landscape design",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 A critical review*, Marc Treib, London, 1993, p159-165
26. VON MOOS Stanislaus, *Le Corbusier : l'architecte et son mythe*, Horizons de

18 논문

- France, 1971,
27. *Le Corbusier et la nature*, ouvrage collectif,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1991
28. *Lettre de Le Corbusier à Mme Meyer*, 24  
fevrier 1926, doc.5
29. *Lettre de Le Corbusier à Mme Meyer*,
- octobre 1925, Fondation de Le Corbusier  
31525
30. *Lettre à Charles l'Eplattenier*, Monaco, 16  
janvier 1911, Fondation de Le Corbusier,  
Paris

# A Study of Process Ideological of Le Corbusier's Utopian Attitude towards Nature

PARK JIN-A

(Proceeding Doctor Degree, University of Pantheon-Sorbonne Paris 1)

##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e a relationship between Le Corbusier's utopian attitude towards nature and architectural ideology and ideology by a form of inquiry into sociological interests. That is to find out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in Le Corbusier's architectural world, namely particularity of his ideology by exploring the base entangled with special interests in the society up until formation of his architectural language. A process of this study is by;

1. Examining of background which affected Le Corbusier's attitude towards nature until the nature became his architectural language;

2. An analysis of Le Corbusier's architectural works.

That is, this study's main interest is on formation of Le Corbusier's architectural language by his attitude towards nature which present in residential field especially focused on Villa Meyer and Villa Savoye, two best examples of his villa.

3. This study have a goal to investigate that utopian and ideological conception in architecture of Le Corbusier have a dialectic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s goal can be achieved by observing in what ways Le Corbusier's utopian attitude towards nature is expressed in residential architectural language and researching into his inconsistent architectural ideology derived from applying architectural language present in villa to pre-fabricated apartment houses.

---

Keywords : Le Corbusier's attitude towards nature, Villa Savoye, Villa Meyer, Utopia, Ideology,

---